

김지사, 장성서 도민과 직접 소통 행보

백암마을 찾아 '현장 좌담회'...불편사항 등 의견 청취 겨울철 폭설 한파 자연재난 철저 대비·건강 관리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연말 마을 현장 좌담회를 통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민심 경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12일 장성 북이면 백암마을을 찾아 김한중 장성군수, 정철 전남도의원, 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지사 마을 현장 좌담회'를 열고 마을 발전 계획과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해남에서 첫 마을 현장 좌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렸다.

마을 서북편 방장산 흰색 투구바위에서 지명이 유래된 백암마을은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농촌이다. 주민 130여명이 굶감, 포도, 복숭아 등을 주로 재배하는 정겨운 마을이다. 백암마을 출신으로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양산군수로서 동래성을 방어하다 전사한 조영규 장군을 기리기 위한 정려(전남도 기념물 제78호)가 마을 입구에 있다.

이날 좌담회는 겨울철 어르신·마을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폭

설 한파에 대해 안전을 당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재홍(62) 마을 이장은 "주민 모두가 넉넉한 인심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백암천 청소, 마을화단 조성, 공동쓰레기장 설치 등 환경정비에 적극 나서 청정전남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됐다"고 마을을 소개했다. 이어 도계-장성 간 국지도 도로공사로 기존 마을 진입로 접근이 불편하고 단차가 발생한 점을 감안, 대안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내년 도계-장성 간 터널 및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남 북서부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사고위험이 줄어 주민 이동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 등 마을 발전이 기대된다"며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예방하고, 폭설·한파 시 주민 행동요령을 숙지해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오후 장성군 북이면 백암마을에서 건의사항 청취 등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잔결음

'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전국 지자체 유일 참석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및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석해 산·학·연·관 대표와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사장, AI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업 대표, 학교·연구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외 연계한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끈다는 목표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등 수요 연계형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기반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연간 16%씩 성장해 2026년에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의 절반 수준인 86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주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에서 검증된 레퍼런

스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초고속·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조성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내년부터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을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 서비스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실증 경험이 있다.

또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274개 과제 22PF(페타플롭스)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느 지역보다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진 부시장은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에 광주가 최적지이고 이미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과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상생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 광주에서 수요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광주도시공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광주도시공사는 12일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제KSBCEM-290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기업 재난관리 표준에 따라 재해경감 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 중단 없이 기능 연속성을 유지하고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과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월 기능 연속성 계

획 도입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이후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교육, 훈련, 모니터링 등 재해경감 활동과 관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행안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구축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도, 폭력피해 구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힘쓴다

민·관·경 연합회...대응능력 강화 모색

전남도는 12일 목포 상그리아비치 관광호텔에서 폭력피해자 구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피해자 지원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여성 안전을 위한 민·관·경 연합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대표 40여명과 22개 시·군 업무담당자, 전남경찰청을 비롯한 21개 지역경찰서 여성폭력 전담 경찰관(APO)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폭력피해자 대응능력 강화 교육과 토론' 및 '소통·화합·소진방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폭력피해자 대응능력 강화 교육'에는 전문강사 김영자 여성주의 상담 슈퍼비저가 폭력 피해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과 역할 등을 강의했다.

강의에 이어 실제 현장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 시설장과 여성폭력 전담 경찰관, 시·군 담당자의 실습과 현장에서의 예로사항, 개선할 점, 기관 간 협조사항 등 열린 토론이 이뤄졌다.

'소통·화합·소진 방지 프로그램'은 한국힐링교육센터 허재원 강사 진행으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유쾌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민간, 경찰, 행정인 안전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며 "연찬회를 통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사회를 위협하는 젠더폭력에 함께 맞서자"고 말했다.

전남도는 변화하는 신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전남 스톱키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 '전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광주시의회, '지방의회 경진대회' 3년 연속 우수상

청소년 관련 4개 조례 일괄 제정 호평

광주시의회는 12일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시 청소년 포유!(For Youth), 4(Four)조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수상한 '광주시 청소년 포유! 4조례'(신수정 의원)의 경우 청소년 정책의 길잡이가 될 ▲광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 ▲광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광주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광주시 청소년지도

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 제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 관련 4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청소년 기본조례),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 조성(청소년활동진흥조례)하며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사회·경제적으로 지원(청소년 복지지원조례), 청소년 육성을 수행하는 전문가 처우 지원(청소년 지도자처우 개선조례) 등 청소년 정책이 분야별로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했다.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3년 연속 지방의회 우수 조례상을 수상한 것은 의원들의 열성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 덕분"이라며 "우수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을 광주시의회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